

설날감사예배

예배인도 : 가족중

신앙고백 신앙고백 다함께
찬 송 460장 다함께
기 도 다함께
성경봉독 시25:12-14 다함께
기 도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 다함께
찬 송 221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 예배를 위한 도움 말씀

1.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제상이나 분향 등은 하지 않으며,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2. 찬송은 믿음의 선조들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함께 부르실 수 있으며, 사회자가 찬송을 인도합니다.
3. 설교는 담당자(사회자)가 일년 동안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5-10분 정도 나누시면 됩니다.
4.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시면서, 선조들의 신앙 발자취를 후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설교 예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대우를 하시는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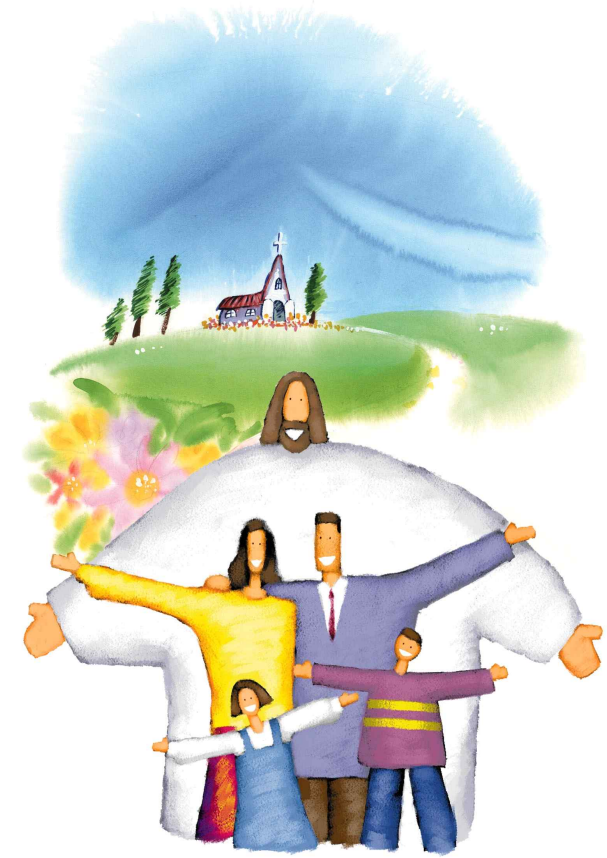
1. 택할 길을 아는 복(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택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 생의 도상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복(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중의 또 하나의 복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 부요나, 세상적 형통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있는 자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설날 감사예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언약 속에 사는 복(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께서 친밀히 대하시고 그 증거로 그에게 언약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궁극적 핵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원계획을 숨기지 않고 그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언약의 계시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 언약의 큰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신자의 복된 길을 힘써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포교회